

韓國醫學圖書館에 있어서의 圖書選擇方法에 관한 研究

—引用文獻의 計數와 分析을 中心으로—

〈A study on the selecting Method of Books for the
Medical Library in Korea〉

申 晶 媛*

대한의학협회지, 한국의 과학 및 最新醫學의 1970年度 및 1971年度 發行分에 收錄된 學術論文 總 1,032篇에 引用된 16,899篇의 參考文獻을 著者別, 저어널別, 單行本別로 및 發行年度別로 計數하고 分析하여 다음과 같은 結果를 얻었다.

따라서 다음에 말하는 結果로 外國文獻과 國內文獻, 逐次刊行物과 單行本の 選擇比率을 定할 수 있고, 키 저어널을 決定할 수 있으며, 醫學文獻의 壽命을 文獻의 種類別 또는 發行國別로 定할 수 있었다.

1. 우리나라 醫學界의 研究文獻에 功獻한 著者를 引用順位로 羅列해 보았다. 外國著者の 引用回數가 14,374회로 全體의 88.66%나 된다.

2. 情報의 流通이 빠른 逐次刊行物이 單行本에 比하여 많이 利用되고 있으며, 그 比率은 逐次刊行物이 82.0%이고 單行本이 18.0%에 不過하였다.

3. 브라드포오드의 分散法則에 의하여 31種의 저어널이 키 저어널임이 判明되었다.

4. 버어턴의 半減期 理論에 立脚하여 우리나라 醫學圖書館의 醫學資料의 壽命을 計算한 結果, 逐次刊行物의 半減期는 7.75年이고, 單行本은 4.11年으로서 全體 資料의 半減期는 6.37年이었다.

5. 發行國別 半減期 計算結果는 韓國文獻이 4.35年, 日本文獻이 1.94年 歐美 其他의 文獻이 7.78年이고, 全體的인 半減期는 7.75年으로 나타났다.

* 聖心病院 圖書室